

사랑의 울타리

남미양(베로니카)/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봉사자

나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환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불과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지 겨우 한 달이 지난 '97년 4월 어느날 나는 해군 복무 중 위암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고 투병 중에 있는 21세의 젊은 청년 환자를 만났다. 그는 아들만 넷인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다.

첫 만남의 느낌은 아직도 미성년에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영혼이 깨끗해 보이는 것이 그저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 병상을 지키고 통증과 싸우고 있던 중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니까 아픈 중에도 엄마는 발에 일 나가시고, 엄마가 알게 되면 걱정해서 안된다며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 너무 가여워서 아픈 곳을 만져주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그 아이의 선한 눈빛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른다.

한동안 퇴원을 했다가 재입원 했지만 통원치료 때 외래에서 볼 수가 있었다. 환자복만 입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은 한껏 멋부린 머리에 사복을 입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순진하고 수줍게 나를 반겼다. 나는 마침 외래 진찰을 받으려고 있던 중이었고 그런 나를 보고 어디 아프지 말라며 오히려 걱정해 주던 그 아이가 그렇다.

재입원하면서 그 애의 엄마를 볼 수가 있었다. 너무 삶이 고단해 보이는 그 엄마는 벌써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작년엔 고3인 막내 아들조차 사고로 하느님 품으로 떠나 보냈고 또 하나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 그애의 죽음을 뻔히 알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의 소망이 가득한 그애를 바라보는 것이 가슴 아팠고 아직 날개짓도 제대로 못해 본 그애가 멋진 비행을 꿈꾸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통증이 그 애를 조여오면 울수록 그 애 엄마의 고통도 비례하며 커 가기만 했고, 그 애 엄마의 심리변화도 느껴져 오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녀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기본도 환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환자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되고 밝아 보이면 우리도 함께 기뻐고 환자가 아프면 우리도 힘이 들고 지치곤 했다.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애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 모습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체중 감소와 목소리도 변했고 가끔씩 이성도 잃은 듯했으며 우리가 계속 옆에 머물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사이 많이 의연해지셨고 침착하게 잘 대처하고 계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웠다. 자신의 죽음을 모르는 환자와 그것을 말 못하는 보호자의 길목에서 누군가 용기가 필요했다.

입종하기 약 일주일 전에 드디어 그 애가 나에게 들어왔다. “아줌마, 저 암이에요?” 나는 기회인 듯 아무렇지도 않고 상냥한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어머, 아직 모르고 있었어? 맞아” 그랬더니 마침 그때 삼촌도 있었고 엄마도 계셨다. 그 애는 목멘 소리로 “삼촌! 이 아줌마가 나 암이래” 하니깐 삼촌이 “아니야” 하고 대답하시길래 내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생각해”라고 말하고는 나왔지만 난 걱정이 태산이었다. 순간 어제 자신이 암이라고해서 병실이 떠들썩하게 난리를 꺾었다고 한 의사 말이 생각났다.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어렵פות이 느끼고는 있겠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 내가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주님!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결국 그는 힘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해 그는 12월 23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하느님 품에 안겼다. 다음날 장례미사로 하느님의 축복을 이승의 마지막으로 받았다. 그에 어머니의 통곡은 화장터로 이어졌고 모세가 미련없이 불가마 속으로 향할 때에 그 어머니의 울음은 절규와 함께 오열로써 말리지 않으면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이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그 어머니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가슴이 아프다. 추위와 함께 몸이 저려왔다. 내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쓸쓸함이 갑자기 밀려왔다.

모세가 떠난 지도 20여일이 지났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 보고도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모세가 죽은 것을 자신의 죄처럼 인식하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시간이 필요했다. 몇 달 뒤 다시 전화를 하니 결번으로 나왔다. 순간 무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했다. 혹시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나의 무심함을 질책도 해 보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날은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터라 발에 나갔을 것 같지 않아 오전에 전화를 넣었다. 내 걱정과는 달리 반가워했고 그렇지 않아도 모세 생각에 마음이 기쁘적이지 않았다 하면서 좋아하셔서 나 역시 너무나 기뻐다. 그래도 내가 그분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의 방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안아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믿는다. 아직도 환자를 만나는 일이 소극적인 나에게도 벽차고 힘에 부치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나의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